

문제1)

제시문 (가)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는 반면 제시문 (나)의 고릴라들은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없다. (가)에서는 인간은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없다.

(가)에서는 인간은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인간의 특수성이라고 한다.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매장한다. 또 여러 형태의 유물들과 함께 풍요롭게 매장한다. 이러한 노동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풍요롭게 매장하는 이유는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다. 더하여 이를 통해 인간은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행위를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며 다른 동물계의 종들과 대비되는 특수성이다.

반면에 (나)에서의 고릴라들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카루스는 마체사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마체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카루스는 마체사를 계속해서 발로 차고 때린다. 마체사의 사체 위로 뛰어내릴 뿐만 아니라 밤새 그녀를 폭행하였다. 더하여 다른 고릴라들인 에피와 무라하도 마체사의 곁으로 가 그녀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몸을 건드렸다. 또 마체사의 딸인 미란다는 어미의 곁으로가 젖을 빨려고 하였다. 죽은 마체사에게 모종의 반응을 이끌어 내려하는 고릴라들의 반응을 통해 고릴라들은 죽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에서는 (가)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다)에서는 죽음에 대해 인식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매장한다. 하지만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 죽은 자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매장하는 (가)와는 달리 (다)는 죽은 자의 추악함 때문에 매장을 한다. 죽은 자들은 부패하게 되고 악취와 추악한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매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가 간소하고 불품없는 모습일 수 있다. 이는 풍요롭게 매장하는 (가)와는 대조적이다. 더하여 (다)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에 애착을 갖게 된다. 이 두려움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는데서 기인한다. 이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보는 (가)와는 대조된다.(1045자)

문제2)

제시문 (라)에서 실험 1,2는 배설물과 관련된 말과 상황이 죽음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1과 2 둘 다 집단 '갑'이 배설물과 연관된 집단이고 집단 '을'이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 실험결과 배설물과 연관이 없는 집단 '을'이 그렇지 않은 집단 '갑'보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연상하였다.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연상된 단어의 수가 더 많은데 이는 주어진 단어의 개수와 그 중에 죽음과 연관된 단어의 개수가 실험 2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에 관점에서는 죽음에 대한 연상과 배설물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가)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인간됨을 이루는 근본이고 인간이 생명체로서의 본능이 약화됨으로서 나오는 현상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자연 질서의 궤도에서 벗어난 생활양식이다. 또 인간이 생존에 대한 자연적인 삶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본능인 배설물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는 관련성이 없다. 그러므로 집단 '갑'이 집단 '을'보다 완성된 단어의 수가 적은 것이다.

반면 (다)에서는 죽음에 대한 연상과 배설물 사이에는 관련이 있다. (다)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죽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악취 나고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한다. 이는 최초의 자연으로 해체되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 부패를 피하기 위해 묘지로 보내 매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 '갑'이 집단 '을' 보다 죽음과 연관된 단어 수가 적은 이유는 배설물을 직면한 후 이를 피하려하기 때문이다. (다)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보일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고 이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한다. 이 실험에서 죽음처럼 악취 나고 추악한 모습의 배설물을 본 후 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그 생각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집단 '갑'의 완성된 단어 수가 더 적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가)에서 주장한대로 사람들이 죽은 자와 함께 머무르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죽은 자를 매장해서는 안 된다. 매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피하고 숨기는 행위이므로 죽은 자를 계속 곁에 두어야 한다. 만약 매장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는 부패하고 추악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과 배설물의 상관성이 형성되고 (라)의 실험결과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1145자)